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지역의견 반영을”

시교육청 학생 수용 계획 줄속 광산 ‘콩나물 교실’ 수업 여전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제294회 임시회가 개최된 가운데 22일에 이어 23일 전남도의원들이 도정 현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이날 도의원들은 전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 뱀장어 종묘연구센터 재추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남북관계 땅끝교류협력으로 풀어야”=우승희(새정치·영암)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실현방안으로 올해 초 발표한 ‘땅끝교류협력’ 추진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틀 속에서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작고 가능한 사업들부터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합경북도 산모와 영유아들에게 미역, 이우식, 보육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남북관계 ‘땅끝교류 협력’으로 풀어야 뱀장어 양식 활성화 종묘연구센터 건립을



우승희 의원



강정호 의원



주연장 의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시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적극 대응”=강정호 의원(새정치·비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정부안에 전남도와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 정부는 투자금 선취수 원칙, 부지매각, 시설물(스카이다워, 국제관 등) 최장 10년 임대 후 매각 등의 방안을, 특위는 투자금 선취수 방법

철회, 청소년해양교육원 등 공공시설물 건립, 30년 이상 장기임대 전환 등을 제시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와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면담에 나서는 등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뱀장어종묘연구센터 재추진”=주연장 의원(새정치·여수)은 뱀장어 종묘연구센터 건립사업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가 전국 뱀장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연간 14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뱀장어 양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묘생산에 대한 기초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특산물로 확보된 뱀장어 종묘연구센터를 중단하기 보다는 적지에 연구센터를 건립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이 줄속으로 이뤄져 광산지역 학생들이 ‘콩나물 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김옥자(광산 3) 의원은 23일 시의회 본회의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영터리 학생 수용 계획으로 광산 수안, 하남지구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교육청이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학급 수 산출 과정에서 학생 유발률을 일괄적(0.30)으로 환산해 콩나물 교실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영터리 유발률 산정은 결국 학급 수 부족으로 이어져 수안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최대 34.4명(고실초)에 달했다. 수안초는 34.3명, 신장초 31.2명, 봉



김옥자 의원

산초 30.7명, 신장초 30.2명 등 30명이 넘는 학교 수도 5개교나 됐다. 이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 23.6명이 비하면 10명 이상 많은 셈이다.

한편 23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 반제신(북구 1)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47개 단지에 1만4736가구, 연립주택은 23개 단지에 5337가구 등 모두 2만737가구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지역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972개 단지 36만1194가구의 5.6%에 해당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T/F팀 2차회의가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대회 성공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U대회 최첨단 경기장·서비스 원더풀”

대표단장 사전회의 참석자 87% “만족”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표단장 사전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사전회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23일 “지난 11~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5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7.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보통은 9.1%, 불만족은 3.2%였다. 대표단장 사전회의의 만족도는 경기장시

찰, 대표단장 회의, 환영만찬, 조추첨, 서비스 등 회의 전반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경기장 시설부문에서는 82.7%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회의에 대한 만족도는 79.6%로 집계됐다. 회의의 만족도는 도착서비스, 등록/AD카드, 회의장 준비, 프레젠테이션 내용, 질의응답 데스크 운영, Q&A회의의 대표단장 회의 등의 항목으로 나눠 조사됐다.

특히 대표단들은 U대회 출신 유명 스포츠 선수가 참여해 조추첨 행사를 진행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줬고,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94.8%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오후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2015광주U대회 지원 TF팀 2차회의’를 개최하고 문화행사 준비, 관광, 안전 시스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부는 광주U대회 기간을 포함해 6~8월 광주·전남지역 방방

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소외계층 문화 순회 추진 계획을 소개했으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프레(pre) 개관 행사와 연계한 아시아스포츠놀이축제, 예술극장 사전개관 공연 계획 등도 논의했다.

광주시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만나질 및 1일 코스 팸투어 및 시티투어버스 확대 운영, 도보·자전거 광주 투어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안전분야 대책도 논의했다. 시는 신·중축 경기장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비롯한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배치하기로 했다.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은 “대회 개막을 70여 일 앞둔 만큼 정부도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충청 7개 광역자치단체

호남선 KTX 연장운행 위해 뭉친다

26일 대전서 연석회의

호남과 충청 7개 광역자치단체가 익산에서 운영이 중단된 ‘서대전역 경유 호남선 KTX’의 연장 및 ‘서대전역~익산역 구간 직선화’를 위해 뭉친다.

대전시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충청-호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2월 서대전에서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운영이 중단되는 등 호남선 KTX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이 일을 계기로 양 권역간 단절이 아닌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연석회의에서는 ‘서대전역 경유 호남선 KTX’의 연장 및 증편, ‘서대전역~익산역 구간 직선화’, 시·도별 중앙 정부 건의 사항, 시·도간 공동 발전을 위한 협

조 등 6개 항목으로 된 공동합의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하고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및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게 된다. 광주에서는 우범기 경제부시장, 충남에서는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대신 참석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호남선 KTX 관련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 것이 양 권역간 교류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양 권역간 공동 관심 이슈가 있으면 또 연석회의를 열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등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

8월 말까지 광주·전남 등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시도에 재난안전실이나 국·도 또는 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지침이 이달 말까지 시도에 전달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7일부터 시행된 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

른 것이다. 시도 재난안전실·국·본부의 장은 서울의 경우 지방직 1·2급으로, 나머지 16개 시도는 지방직 2·3급으로 정해졌다. 시도는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후 8월 말까지 조직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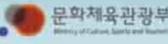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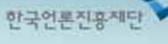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갇히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불법도박은 이용자도 함께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불법 사행행위를 신고(☎1855-0112)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